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44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문	3
IV . 검토의견	5
1. 제안취지	5
2.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4. 11. 20.

3.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쌀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임. 하지만 11월 15일 현재 산지쌀값은 18만2,872원(8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8.2%(1만6,408원) 하락함. 농자재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쌀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칫 식량이 무기화되는 세계 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임.

지난 10월 정부는 초과생산량은 12.8만톤이지만 20만톤 이상 시장격리하겠다고 수확기대책을 발표하였음. 그럼에도 쌀값이 정상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임. 즉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정부는 23년도산 쌀 가격을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음. 2023년 11월 20만원 이하로 떨어진 이후 10개월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늦장대응, 짙끔대책, 꼼수대책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하여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며, 사전적 수급조절과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 식량자급률 향상,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 특단의 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려는 것임.

Ⅲ.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쌀 가격 정상화 및 수급 안정,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지난해 농민들에게 쌀값 20만원(80kg) 보장을 약속한 만큼 쌀 가격의 조속한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하여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시장격리 등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반복되는 쌀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 방지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타작물재배 지원 확대 등 사전적 수급조절 대책과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벼멸구 등 농작물 재해 피해와 농산물 생산 감소 등 기후위기에 따른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

협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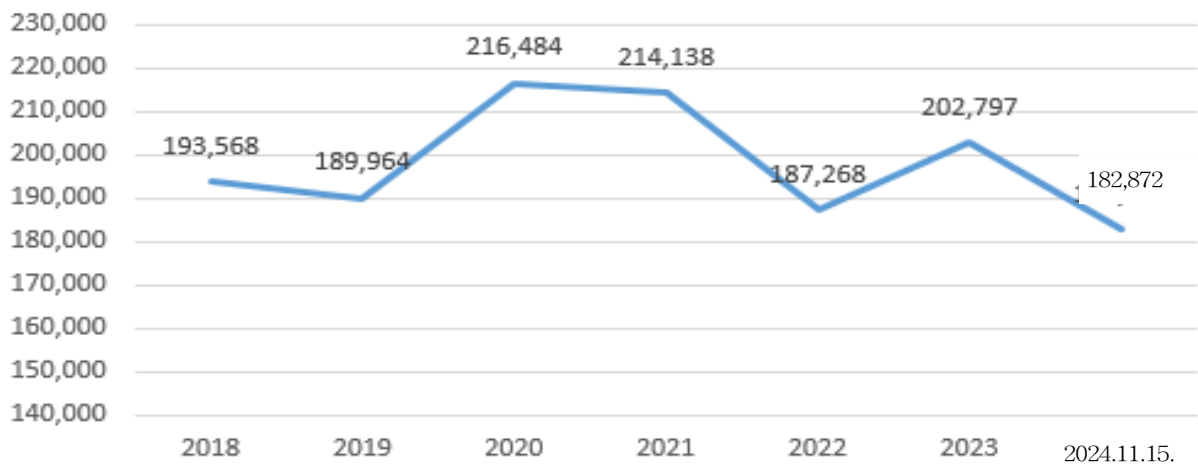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협도 쌀 가격 안정의 주체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IV. 검토의견

1. 제안 취지

- 최근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따라 농가 경영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2024년 11월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182,872원/80kg으로, 전년 수확기(2023년 10월~12월) 평균 산지쌀값 202,797원/80kg 대비 9.8% 하락한 수준임.

< 연도별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비교(단위: 원/80kg) >



※ 주 : 산지쌀값은 RPC 등 370여개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확기(10~12월)에 10일마다 1회 조사 후 조사 결과(9회)를 지역별, 가격별 가중평균값

- 이와 같은 최근의 산지쌀값 수준은 2023년 4월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 이후와 2023년 11월 10일 농업인의 날 대통령 축하

에서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목표 산지쌀값 20만원/80kg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24년산 쌀 20만톤을 시장격리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관리양곡 30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나, 당초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목표 산지쌀값 20만원/80kg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결의안은 정부의 명확한 쌀값 목표 제시, 추가 시장격리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양곡관리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2.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 쌀값이 하락하는 원인 중 하나는 쌀 소비량 대비 쌀 생산량이 과다함에 따른 쌀의 초과공급에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4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358.5만톤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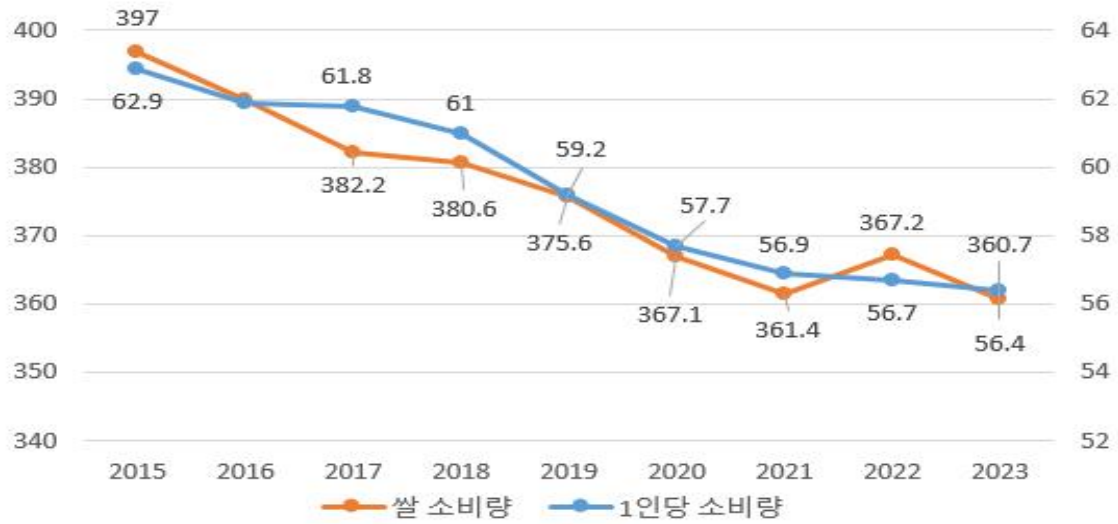
< 연도별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단위: 만톤, 만ha) >



※ 주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쌀 소비량도 쌀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4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352.9만톤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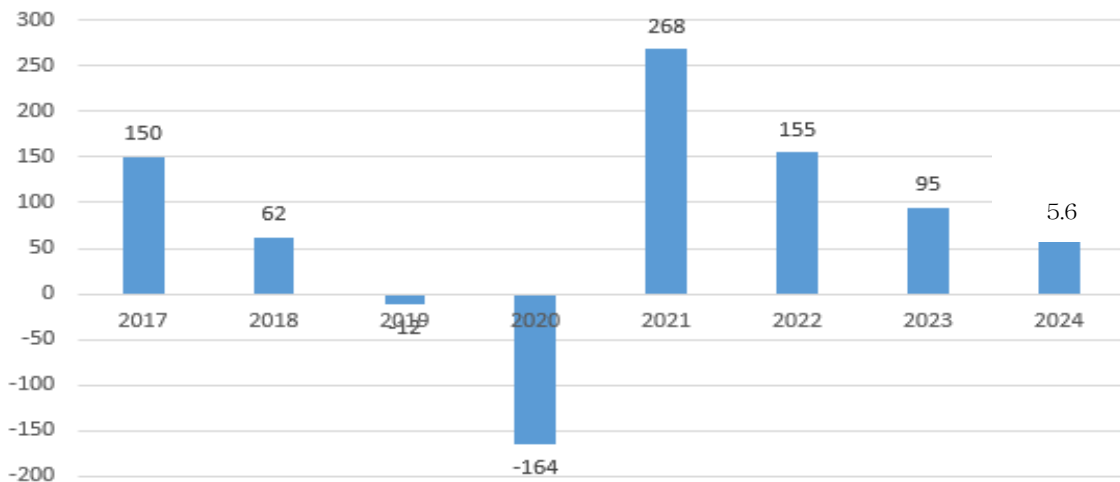
< 연도별 연간 쌀 소비량(단위: 만톤, kg) >



※ 주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즉, 쌀 생산량 358.5만톤과 쌀 소비량 352.9만톤의 차이인 5.6만톤이라는 쌀의 초과공급량이 쌀값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연도별 쌀의 초과생산량(단위: 천톤) >



※ 주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은 쌀의 초과공급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쌀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쌀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 중임.

밀·콩·가루쌀 등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쌀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타작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키고, 쌀 소비를 홍보하거나 아침밥을 지원하는 등의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결의안 각 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 있음.

주문1은 쌀값의 조속한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쌀의 목표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고, 추가 시장격리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주문2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수급조절 대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임.

주문3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기후위기에 따른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주문4는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협도 쌀 가격 안정의 주체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 종합하면, 결의안은 쌀값의 정상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과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쌀값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이상기후·병해충에 따른 피해농가를 보호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논타작물의 적극적 재배 등을 통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및 식량안보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